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제 최대 경제포럼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리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294호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의사 증원 물꼬 튼尹…전문가·의료계에 낮은 자세 경청모드

尹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의료계 숙원과제 해결의지도 부각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물꼬를 뚫었다.

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와 지방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장소도 지방 국립대 인 충북대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부각하고자 이 장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확대 폭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나왔던 터라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편의를 위한 증진 원칙을 밝혔지

만,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대목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몸을 한껏 낮추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현재 3천58명으로 17년째 둑여있다. 그만큼 해묵은 과제로 의료계

와 처음부터 극한 갈등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반발엔 불이 붙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 파업에 직면해 뜻을 접었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숙원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의사 단체들은 ▲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 의료 사고 시 의료 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

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 해묵은 문제들에 대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의료계 반대를 넘어 의대 증원 이란 정책 목표를 관철하려면,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전문성 있는 지적도 함께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이 많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숫자는 정해진 게 없다는 일관된 입장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1천명 넘게 늘리는 방안 외에도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이번 정부 내 순차적으로 3천명을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원 숫자는 국민들 마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면 의미가 없다”며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은 오늘 신호탄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재성 기자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피해 민간인에 200만 달러 인도지원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을 돋고자 200만 달러(27억여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외교부는 19일 이번 지원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 피해가 심화하는 것에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인도주의

적 지원으로 사태 해결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충돌이 시작된 후 양측 사망자는 이스라엘 1천400여명, 팔레스타인 3천400여명 등 4천800여명에 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가지지구·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백현우 기자

Photo News



양재훈, 접영 100m 한국신기록

18일 오후 전남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일부분 접영 100m 결승에서 51.85로 한국신기록을 기록한 양재훈(강원도청)이 포효하고 있다.

‘수원 전세사기’ 고소 226건으로 늘어 피해액 339억 상당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고소 장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9일 낮 12시 기준 총 226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 건수는 전날 207건(피해 금액 310억여원 상당)이었으나 하루 사이 20건 가까이 늘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경찰은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자 정씨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지난 17

일에는 주거지와 범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1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

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

련 범인 등 총 18개의 범인을 세워 대규

모로 임대 사업을 벌였으며, 아들 정씨

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

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

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이다.

이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

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

산한다.

/ 송원기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사필 제22-03595호(2022년 10월 28일~2023년 10월 27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저선기경 변동,<환율 변동>,<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작성등급은 AAA/AA/A BBB 각 +0,- 순으로 구분됩니다.



이재명, '여의도 복귀' 임박…통합 행보로 리더십 굳힐까

내주 복귀해 '비명계 징계청원'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 결정할듯…'통합' 방점' 관측



단식 후유증으로 회복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그가 여의도에 돌아와 내놓을 메시지에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징계 청원에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쏠린다.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암승을 통해 리더십을 공고히 했지만, 이 문제는 또 한 번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진대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다음 주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선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이번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 두 차

례나 출석하게 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잡힌 재판 일정은 '공직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건(27일)뿐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내놓았던 최근 메시지처럼 복귀 후에도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번 징계 청원과 별개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명계 지도부의 '해당 (害黨) 행위자 징계' 요구까지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명계가 다수인 최고위원들은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가 다수인 최고위원들은 윤리심판원 회부를 보류한 채 이 대표의 복귀만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최고위원 다수는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탄핵' 발언 등을

해당 행위로 규정,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 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징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시스템 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후임 지명자 최고위원 임명 문제도 계파 갈등을 재점화할 뇌관이 될 수 있다.

지도부는 당초 충청권·원외·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사실상 낙점하고 이 대표에 추천하려 했으나 비명계 반발에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친명계인 박 전 구청장은 지금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에는 공천장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23일부터 3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천300여개 기관 참여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3년 3회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올해 치러진 훈련 가운데 가장 많은 2천3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충북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은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치른다.

문화재청과 경남 양산시는 사찰 인근 대규모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훈련을 한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시설 화재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과 발전설비 복구에 대한 훈련을 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훈련 평가 후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해 세부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경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1차 대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준 기자

김한길 “어디 안가니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총선 역할론 일축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통합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 했다.

김 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재한 만찬에서 “국민통합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번 들어달라”며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보고서 100부를 당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장면은 김 위원장 역할론이 세간에 떠돈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

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부터 합류해 최근에도 독대하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준비위원장과 공동대표까지 맡을 만큼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도 갖춘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는 ‘책사’로 통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이 부인은 했지만, 연말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도 차별화에 실패하는 등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경우 김 위원장 역할론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5~26일 국민통합위 2기 출범에 맞춰 수도권에서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다를 의제와 안건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김강우 기자

'줄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은 1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줄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다”며 “그런 적이 없으며,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고 했다.

또 “2021년 10월경 첫 번째 줄리 의혹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해 낙선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안해숙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은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아무런 증거 없이 영터리 기소를 했다”며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희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접객원·접대부·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대선 전 당시 윤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유튜브에서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같은 주장을 리디오 방송에서도 반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송진영 기자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소중한
전기
로부터
시작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바꿔 지역의료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종주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종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종인건비는 연 1~2% 늘려왔다. 이 때문에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끌든아위’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 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 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증·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 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 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대가)도 올린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 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 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증·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 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 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대가)도 올린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사하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의료인 행사처 벌칙과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진성원 기자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 브로커, 혐의 인정

미훈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

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팔을 판 친모 B(26) 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팔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훈모라고 속 었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는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팔을 C

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 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팔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피해자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 오은주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KOB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금융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통급

“안전한 헬리원 축제” 이태원·홍대 등 합동 상황관리 나선다

행안부, 27일부터 전국 지자체·경찰청 등과 사전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를 찾아 인파 밀집 관리 준비 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 등 헬리원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을 비롯해 17개 시도 등 26개 기관 관계자와 헬리원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

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10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새간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홍대·명동 거리,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사는 심하거나 좁은 골목을 중심으

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미리 세워 소방·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순간적인 인파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즉시 이동식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에는 26일부터 이를간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헬리원 축제에 여러 곳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에서는 인파밀집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해 미비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민경준 기자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계획 없어”

신원식 장관 “스마트폰 허용, 국방 허무는 길” 과거 발언 우려에 해명

국방부는 19일 신원식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에 따라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 간 확대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현재 시범운용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019년 있었던 발언이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문재인 정부의 외 출 권장과 스마트폰 허용정책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 주장했

다”고 말했다. 이에 장관 후보자였던 신원식 장관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기억이 난다”고 시인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개인 SNS 방송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군 대문화’에 관해 언급했던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군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박성현 기자

與, ‘李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에 “재판지연 편들기”

“1심 판결 언제 나올지 국민 걱정…병합 없이 진행해야”

국민의힘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 “재판 지연에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맡아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사건에 병합해 같이 심리하려는 것”이라며 “관련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배당 비판

합쳐지면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대장동과 관련 없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며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정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송유영 기자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 “최민희 유권해석 신속 진행 노란버스 논란 송구”

이완규 법제처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학교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며 불거진 ‘노란버스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 처리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의원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늦어진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신속히 해석하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나, 금년 내에 가장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쳐장은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방통 위원 관련 유권해석이 6개월이나 걸릴 사안인가’라고 비판하자 “우리는 그렇게 생

각한다. 늦어진 것은 송구하다”고 했다.

이 쳐장은 노란버스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 안전 강화 쪽으로 입법이 돼 왔고, 강화 쪽면에서 일시적인 체험학습 버스에서 안전 장치를 두는 게 맞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현장에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 개선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며 “어쨌든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쳐장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잊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엄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현철 기자

경실련 “정의당 심상정·민주당 김성주, 개혁법안 발의 1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부동산·복지 분야에서 각각 ‘개혁 입법’ 점수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반(反)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로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복지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뽑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

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실련 활동가와 전문가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 2천120개, 복지·소비자 2천347개 법안의 개혁성을 평가한 결과를 다뤘다.

점수는 ‘개혁’으로 평가된 법안에 1점, ‘중립’은 0점, 경실련이 꼽은 개혁과제와 일치하는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반

개혁 입법 점수도 마찬가지로 평가됐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정의당 심상

정 의원(60점), 민주당 박상혁(50점)·홍기원(42점) 의원이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개혁적’으로 평가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반개혁 입법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51점), 더불어민주당 김교홍(44점)·천준호(42점) 의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들 의원에 대해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필요할 때마다 세심하게 교보돌봄·간병보험 (무배당)

- ✓ 경도 이상의 장기요양상태부터 폭넓게 보장
- ✓ 특약으로 재가입여 5개 항목, 시설급여 1일 1회 보장
- ✓ 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지급

* 상기 내용은 주계약 및 각 혜택 특약을 기입하였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KYOB
교보생명

복지·소비자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54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51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46점) 순으로 개혁 입법 상위권에 올랐다.

경실련은 이들 의원에 대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개혁 입법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60점), 국민의힘 이종성(53점)·강기윤(47점) 의원이 상위 3위에 차례로 올랐다. 신 의원은 개혁 법안에서는 3위, 반개혁 법안에서는 1위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 이규현 기자

권익위 국감서 ‘이재명 청담동 샴푸·‘박민 거액 자문료’ 공방

與 “李, 샴푸 사러 7급 공무원 보내” 野 “朴, 12시간 해서 월급 필적 자문료”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 국정 감사에서 각기 상대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끌어내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나와 “(당시 공무원이)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께서 개인용품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아·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 됐는데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조사를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응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천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 최재만 기자

김현숙 장관, 내달 여가부 국감 참석하기로…“열심히 준비”



때까지 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감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국감에 집중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따라 사실상 부처의 마지막 장관으로 부임해왔으나, 올여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폐행을 겪으며 거센 비난 끝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후임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이장에서 여려 의혹을 받아 자진 사퇴하자 장관 직무를 이어왔다.

김 장관이 제출한 사표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여가부 국감에서는 폐행을 겪은 잼버리 대회와 김 장관 책임론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백도영 기자

잼버리 파행 사태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달 초 있을 여가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 조민경 대변인은 1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가부 국정감사에 누가 참석하는지 묻는 말에 “김(현숙) 장관이 들어간다”면서 “후임 장관 오실

“사형 마땅할수 있지만…” 동거인 등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재판부 “형 평가 많이 고민했다…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재판장)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했다.

이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씨는 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 서종익 기자



충남 보령 해상 밀입국 선박에서 발견된 총알 관통 흔적

유아인 불구속기소…프로포폴 등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6월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

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권 남용”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장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 박소희 기자

해경 총탄에 중국선박 출행량 보령 밀입국 용의자 추가 검거

최근 선박을 타고 충남 보령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사건과 관련, 중국 해양당국이 용의자 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양경찰국이 보령 해상 밀입국 사건 용의자 5명을 추가 검거하고,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중국 현지에서 붙잡힌 용의자 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모두 6명이 검거됐다.

30~40대인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까지 운항할 선박을 섭외하는 등 밀입국 준비 과정에만 관여한 용의자들로 5명은 남성, 1명은 여성으로 파악됐다. 중국 해경국이 발견한 밀입국 선박 조종실에는 선박용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통신기 등 항해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미에 장착된 엔진 4개 중 1개에는 선박이 중국 해역으로 도주할 당시 우리 해경의 경고 사격으로 총알이 관통된 흔적도 발견됐다. 중국 해경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현지 용의자를 총 8명으로 특정하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과 선원 등 나머지 2명을 죄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밀입국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해경국과 긴밀히 협조해 밀입국 시도가 중국 해역에서 미리 차단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km 해상에서는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해엄을 쳐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천항 해상이나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거나 경기 안산으로 도주했다가 차례로 검거돼 구속됐다. 이들을 태운 선박은 밀입국 중국인들을 해상에서 내려주고 당시 해경의 추적을 피해 곧바로 달아났다.

/ 민성호 기자

“왜 험담해”…흉기 휘둘러 지인 살해한 50대 체포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분께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5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등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 씨 외에 다른 한 명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김희성 기자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 IP65 등급 | 방수·방진 | 최대 3m 낙하 |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간 반쪽 일정' 이스라엘 편든 바이든…중동정세 대혼란

이슬람권 “미국에 죽음을” 분노 폭발…확전 우려 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운데 원쪽)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활주로에 영접 나온 네타냐후 총리와 포옹하며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찾아 전폭적인 지지 의지를 겨듭 강조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현지 정세가 대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대해 8시간이 안 되는 일정에서 내세울 만한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 암만을 찾아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집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고 암만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 주변국의 동의를 얻고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가자지구 중심의 한 병원에서 대규모 폭

발이 발생해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 요르단이 미국 등과의 4차 회담을 취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직접 만나 논의할 기회는 무산됐다.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알려진 직후 중동 국가들은 잇따라 분노를 표시했고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반서방 규탄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문에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이스라엘과 무관하며 가자지구 테러 그룹의 로켓 오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병원 참사를 두고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오발 사고로 각각 규정하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기

까지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국가 안보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초기 정보 분석 결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자체를 재고했을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 관리들만 만나면서 당초 이번 중동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확전 방지 노력 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당장 이란은 국영 TV를 통해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 볼라, 시리아와 이라크 무장단체,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지도가 보이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NYT는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18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돌을 던지고 인근 건물에 불을 질렀다.

가자 병원 참사 이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하마스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미국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으며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도 들려왔다 NYT는 전했다.

/ 손현수 기자



총불당(CP) 부대표인 탁 세타

훈 마넷 ‘정적 탄압’ 대물림하나 반대파, 선동 혐의로 징역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부친 훈센 전 총리의 반대파 탄압을 담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촛불당(CP) 부대표인 탁 세타에 대해 선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탁 세타는 과거에 양민 대학살을 저지른 크메르루즈 정권 종식을 계기로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올해 1월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캄보디아 당국은 과거사를 왜곡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탁 세타를 기소했다.

훈 마넷의 부친인 훈센 전 총리는 1979년 1월 7일 크메르루즈 정권이 베트남의 침공으로 전복되자 캄보디아인민공화국 수립을 주도했다. 이어 1981년 부총리 겸 외교장관직에 오른 뒤 1985년 1월 14일 32세의 나이로 총리에 선격 취임해 38년 간 캄보디아를 통치했다.

캄보디아인민당(CPP)은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은 크메르루즈 정권이 종식된 날을 ‘승전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올해 1월에도 탁 세타는 부정 수표 발급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권이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훈 마넷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반대파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CPP는 전체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일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어 새로 구성된 국회가 훈센 당시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을 신임 총리로 선출하면서 권력 대물림 작업이 완료됐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훈센 정권을 상대로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신재일 기자

431억→271억→‘0’…‘오염수 방류’에 日수산물 中수출 9월 전무

작년 중국 수출액 약 7천900억원…오염수 방류 후폭풍 ‘심화’

중국이 지난 8월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일본 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9월 수입액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9월 무역통계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수치가 기록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7월 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해 사실상 수입 제한을 시작했고 8월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3.7% 감소한 2억3천451만위안(약 431억원), 8월 수

입액은 67.6% 줄어든 1억4천902만위안(약 271억원)에 그친 데 이어 9월은 사실상 수입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71억엔(약 7천900억원)이었다. 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중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조치로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내 가공도 불가능해지자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교도소 수용자에게 가공 작업을 시키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농림수산성과 법무성이 전날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가리비 데기 벗기기 등 가공 업무를 교도소 수용

자 형무 작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산 가리비는 중국에 수출돼 가공 후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작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직접 가공해 수출하고자 이런 대응책을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가공 업무를 담당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교도소 수용자 작업을 활용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가리비를 가공하면 유럽 등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일본 정부는 수용자를 가공장에 파견해 작업을 시킬 계획이다.

/ 남희찬 기자

스타벅스,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 올린 노조 고소

스타벅스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직원 노조를 고소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스타벅스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면서 노조에 ‘스타벅스 노동자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스타벅스 로고와 유사한 녹색 원형 로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스타벅스는 해당 게시물이 수백명의 고객을 화나게 하고 자사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직원 노조인 ‘스타벅스 노



살해하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200명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스타벅스 노조는 해당 게시물이 40분 안 되게 걸려있다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스타벅스 노조 지역 본부들의 게시물과 리트윗은 18일에도 여전히 엑스에서 볼 수 있다.

스타벅스 노조는 시족의 요구에 대해 “스타벅스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비극을 반노조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지훈 기자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 신재일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유아 험스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두 정세경 대표님'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한은, 기준금리 3.5%로 6연속 동결…안갯속 경제에 ‘관망’

“완만한 물가 둔화 속도·가계부채 증가 등에 긴축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지난 2·4·5·7·8월에 이어 19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끊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를 줬다.

만약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미 너무 많이 뛴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당분간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상승률이 올해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 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헤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를 증진시키고
임직원 보장/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광고임

[준법감시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유인촌 장관, 잇단 현장 행보…문화의 달 맞아 신안·광주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10월 21일)을 맞아 20~21일 전남 신안과 광주 등 지역문화 현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21일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는 신안군 자은도를 방문해 문화의 달을 축하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 장관은 2021년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을 둘러보고, 문화의 달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역문화대상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등 세 곳이 선정됐다.

유 장관은 행사 하루 전날인 20일에는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유 장관은 "지역이 가진 소중한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K-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중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가까이에서 밝힌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문화 기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그는 지난 18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해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시설을 점검했다. / 박정균 기자



4년만의 보은 대추축제 '대박 행진'

이번 주말 절정

충북 최대 농산물 축제로 발돋움한 보은 대추축제가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축제장인 보은읍 벗들공원은 달달한 대추 향기에 이끌려 나온 인파로 가득 찼고, 속리산 일원서 생산된 청정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총도 인기다.

보령천을 따라 900여m 구간에 걸쳐 늘 어선 대추 판매장에서는 농민들이 달고 아삭거리는 대추를 나눠주면서 '명품 보은대추' 자랑에 분주하다.

/

박정균 기자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전기차는 올해가 타이밍



※ EV 세일페스타 10월 퀴즈 이벤트 바로가기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대상 차종 및 혜택 아이오닉 5 / 아이오닉 6 최대 56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320만 원 상당의 혜택 제공(추가 구매보조금 포함 시)

HYUNDAI

Bluehands
화정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응시판 원스 서비스 080-800-6000 ■ 차량용 제품 해외: 아이오닉 5 320만 원 할인 + 최대 100만 원 출판 크레딧 + 추가 구매보조금(국내) 80만 원, 미아오닉 6 320만 원 할인 + 최대 100만 원 출판 크레딧 + 추가 구매보조금(국내) 80만 원, 코나 알파트로닉 120만 원 할인 + 최대 100만 원 출판 크레딧 + 추가 구매보조금(국내) 40만 원 등 단 아이오닉 5N 해외, 아이오닉 5 엘리트 베이스 차량의 필요 보증: 출판 크레딧+전기차 충전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EV 세일리미스터리 차량의 필요 보증: ① 30만 원 크레딧(기본 제공) + ② 40만 원 크레딧(현대차자동화 전용카드 프로모션) + ③ 40만 원 크레딧(현대차의 할부/임대 프로모션) 총 ④ 80만 원 크레딧(기본 제공); 출고 후 차량서비스 및 차량현대 퍼팅카드: EV 세일리미스터리 충전 크레딧+신한카드 제공, ⑤ 40만 원 크레딧(현대차자동화 전용카드 프로모션): 현대차·현대카드 300만 원 할인+제공 및 차량현대 퍼팅카드 제공, ⑥ 40만 원 크레딧(현대차자동화 전용카드 프로모션): 현대차비밀 할부/임대 프로모션+리스 이용 시 제공(할부 500만 원 미상 + 예상 미상 예상 기준); ⑦ 출고 후 차량현대 퍼팅카드 300만 원 할인+제공 및 차량현대 퍼팅카드 제공, ⑧ 차량현대 퍼팅카드 및 충전 크레딧 제공 즐겨보기로 살기 창작물 경품 공모전 표준문서는 해당행들의 가격표,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프로모션은 경기사들의 구매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자동화는 자동/마비증의 카이스너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구글 어느 구매세나 같은 폐지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김하성 MLB 골드글러브 끼나…2루수·유틸리티 최종 후보

올해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가장 빛난 선수인 김하성(28)이 역대 한국인 베이비리그 최초로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김하성은 19일(한국시간) 발표된 2023 롤링스 골드글러브상 내셔널리그 포지션별 최종 후보 두 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후보는 포지션당 3명으로 압축됐다. 김하성은 2루수 부문에서 니코 호너(시카고 컵스), 브라이언 스토프(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쟁한다.

김하성은 또 유틸리티(만능) 부문에 도 후보로 나서 무기 베츠(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한국계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수상을 다퉐했다.

베츠는 우익수 부문 수상 후보에도 포함됐다.



밝은 모습으로 귀국하는 김하성

MLB닷컴은 김하성과 호너, 스토프가 모두 소속팀이 대형 유격수를 영입한 바람에 2루로 옮겨 골드 글러브 수상 후보에 오른 공통점을 지녔다고 소개했다.

컵스는 댄스비 스완슨, 필라델피아는

트레이 터너,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산더 르 보하르츠와 각각 계약했다.

스토프와 호너는 평균대비아웃기여(OAA) 수치에서 각각 +16, +15를 기록했고, 김하성은 2루수로 +7, 전체 포지션을 아우른 OAA는 +10으로 평가받았다.

김하성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3루수, 2루수, 유격수 등 1루수를 제외한 내야 전포지션 수비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한다는 데 있다.

김하성은 우익수, 2루수, 유격수 세 포지션을 뛴 베츠, 역시 2루수, 외야수, 유격수 세 포지션을 넘나든 에드먼과 유틸리티 부문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30개 구단 감독과 팀당 최대 6명으로 이뤄진 코치진의 투표와 미국야구연구협회의 수비 지표를 합쳐 골드 글러브 수상자를 결정한다.

코치진의 투표가 75%를 차지해 통계 수치인 수비 지표(25%)를 압도한다. 김하성이 수치에서 뒤졌더라도 코치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김하성의 수상 여부는 우리 시간 11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판가름 난다.

/ 최준용 기자



18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경기. 득점에 성공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연경 23점·엘레나 22점…흥국생명,

헬전 속 현대건설에 승리

흥국생명이 헬전 끝에 현대건설을 꺾고 2023-2024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먼저 2승을 챙겼다.

흥국생명은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방문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2(15-25 25-12 25-21 21-25 15-12)로 승리했다. 우승 후보답게 양 팀은 5세트 접전을 벌였다.

흥국생명은 김연경(23점)과 엘레나 브라제노비치(22점·등록명 엘레나)의 측면 공격을 앞세웠고, 현대건설은 미들 블로커 양효진(17점)과 이다현(7점)의 높이에 모마 바소코 레티치아(17점·등록명 모마)의 측면 공격으로 맞붙었다.

블로킹 득점은 현대건설이 14-7로 앞섰지만, 서브 에이스는 흥국생명이 7점으로 2개에 그친 현대건설보다 많았다.

공격 성공률은 흥국생명(35.67%)이 현대건설(34.28%)을 근소하게 앞섰다.

마지막 5세트도 치열했다. 흥국생명이 9-10에서 김연경의 오픈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자,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빈 곳을 노린 연타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엘레나의 백어택으로 균형을 맞춘 흥국생명은 이원정이 위파워 시동(등록명 위파워)의 퀵 오픈을 블로킹해 역전에 성공했다. 박은서의 서브가 라인 밖으로 벗어났지만, 김연경이 퀵 오픈으로 후배의 실수를 만회했다.

경기 내내 현대건설 미들 블로커에게 밀렸던 흥국생명 이주아가 모마의 백어택을 거뒀다.

을 가로막으면서 흥국생명은 14-12,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다.

위파워의 오픈 공격을 수비로 걸어낸 흥국생명은 엘레나가 오픈 공격을 꽂아 넣어 올 시즌 현대건설과의 첫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고도 웹피언결정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패한 흥국생명은 14일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꺾었고 라이벌 현대건설 마저 놀랐다.

15일 페퍼저축은행에 승리했던 현대건설은 흥국생명의 벽은 넘지 못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새로운 해결사 마테이 쪽(등록명 마테이)과 토종 주포로 성장하는 김지한의 조화로 현대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3-0(25-17 25-19 26-24)으로 꺾고 역시 개막 2연승을 거뒀다.

15일 삼성화재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우리카드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점 3을 챙겼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개인 통산 275승(214패)째를 거둬, 신치용 전 삼성화재 감독이 보유한 V리그 사령탑 최다 276승(74패)에 1승 차로 다가섰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14일 대한항공과의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패했다.

이날 우리카드에서는 마테이가 64.86%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27점을 올렸고, 김지한도 10점(공격 성공률 61.54%)으로 힘을 보탰다.

/ 서정미 기자

A매치서 다친 네이마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결국 수술대에



우루과이와의 경기 중 부상으로 실려 나가는 네이마르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 도중 다쳐 실려 나갔던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알힐랄)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브라질축구협회(CBF)는 19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네이마르가 검사 결과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반월판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BF는 “네이마르는 수술받을 예정이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 구단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도 수술 사실을 알리며 “네이마르의 회복 프로그램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

다. 네이마르는 전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경기에 출전했으나 전반 막바지 다쳤다.

상대 선수 니콜라스 데라크루스와 경합 이후 그라운드에 발을 디뎠으나 휘청이며 넘어졌다. 통증을 호소한 네이마르는 손으로 땅을 치며 괴로워했고,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다. 실려 나갈 때는 눈물을 가리는 듯 손으로 눈 쪽을 감싸기도 했다.

큰 부상이 우려되는 반응이었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

게 되며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브라질 대표팀과 알힐랄에 모두 대형 악재다.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도중에 빠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2로 완패하며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3위로 밀려났고, 11월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와 2연전을 앞두고 있다.

8월 네이마르를 영입하며 이적료만 9천만 유로(약 1천285억원)를 쓰고 1억 달러 넘는 연봉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 알힐랄은 그를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네이마르는 알힐랄 유니폼을 입은 뒤 이번 시즌 사우디 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합해 5경기에 출전, 1골을 기록했다. 네이마르는 선수 생활 내내 유독 짙은 부상에 시달렸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던 올해 3월엔 발목 수술을 받아 오래 자리를 비운 바 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한국과의 16강전을 통해 복귀했고, 2018년과 이듬해엔 오른발 부상으로 약 3개월씩 결장한 적도 있다.

/ 권정석 기자

피겨 유영·위서영, 시니어 GP 1차 대회 출전…새 시즌 시작

지난 시즌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한국은반 스타들이 다시 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가 2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엘런에서 열린다. 한국은 여자싱글 유영과 위서영(수리고), 아이스댄스 임해나-취안예(이상 경기일반) 조가 1차 대회에 출전해 첫 테이프를 끊는다.

유영과 위서영은 22일 오전에 열리는 여자 쇼트를 시작으로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임해나-취안예 조 역시 같은 날 리듬 댄스에 나선다.

유영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여자 싱글 간판으로 활약했으나 올림픽 대회 기간 부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충격을 받았고, 이후 각종 부상 속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1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진해 국가대표 자격조차 얻지 못했으나 개인 자격으로 그랑프리 1차 대회와 11월에 열리는 5차 대회에 출전해 재기를 노릴 계획이다.

/ 백현중 기자



SR의 새로운 변화 대한민국 철도의 가치를 높입니다

SRT를 통해 만나는 사회, 경제, 문화의 융·복합 서비스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통쾌한 한 방을 위한 기나긴 기다림...영화 '용감한 시민'

학폭 가해자 주먹으로 응징하는 기간제 교사 이야기

평온한 고등학교 교정에 포르쉐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들어선다. 차에서 내린 건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학생 수강(이준영 분)이다. 학교폭력을 주도해 2년을 유급당한 그는 이 학교의 왕이다.

학교 안에서 벼젓이 담배를 피우는 건 물론이고 교사에게 존댓말조차 쓰지 않는다. 심지어 동급생 진형(박정우)을 때리는 걸 교내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에게 폐악을 부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겸찰에 '빡'이 있고 학교 재단과 줄이 달아 있으며 집도 부자인 수강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적이 생긴다. 전직 프로 복서 이자 기간제 교사 시민(신혜선)이다. '소시민'이라는 이름처럼 조용히 일하다 정규직이 되는 게 그의 꿈이지만, 수강의 안하무인인 시민의 눈에 자꾸만 거슬린다.

시민은 결국 고양이 모양의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수강을 흡씬 두들겨 패주기 시작한다.

박진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용감한 시민'은 친구들을 괴롭히던 수강과 그에 맞



영화 '용감한 시민' 속 한 장면

서는 시민의 이야기다. 김정현 작가가 연재한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선아이 뚜렷한 캐릭터와 악인을 범에 앞서 주먹으로 응징한다는 스토리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던 수강이 시민에게 정신 차릴 새 없이 맞는 장면을 보면 퀘감이 찾아온다. '범죄도시', '핸트' 등에서 실력을 뽐낸 허명행 무술감독 표 액션도 시원한 타격감을 안긴다.

그러나 이런 통쾌한 한 방을 느끼기 위

해서는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학교 폭력이 체감상 러닝타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여자라고 해서 수강 일당의 폭력을 피해 기진 못한다. 자기 몸집의 반만 한 여학생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 얼굴을 밟는 모습에선 절로 눈이 짙은 감긴다. 시민의 "참교육"을 더 극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도 시원한 타격감을 안긴다.

해도, 여자 교사를 향한 성추행과 욕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화는 깔끔한 권

선징악으로 마무리되지만, 허무함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

시민이 용기를 내 수강을 처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강 일당 못지 않은 싸움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결국 수강만큼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락되기 어려운 정의 구현이라는 말이다. 공권력과 힘을 동시에 가진 '범죄도시'의 괴물 형사마석도(마동석)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웹툰에선 자연스레 받아졌던 세계관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어색해진 감도 있다. 아무리 교관이 바닥에 떨어지고 청소년 범죄가 극심한 요즘이라고 해도, 영화 속 학교는 도저히 실존할 것 같지는 않다.

박 감독은 17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교관 침해와 학폭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라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뿐이고 지금 세상에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5일 개봉. 112분. 15세 이상 관람가.

/ 권정석 기자



왼쪽부터 배우 정려원·위하준

안판석 PD 신작 멜로 '졸업'에 정려원·위하준 출연

배우 정려원과 위하준이 학원 강사로 변신해 멜로 연기를 선보인다. tvN과 티빙은 새 드라마 '졸업'의 캐스팅을 마치고 촬영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중 공개되는 '졸업'은 베테랑 학원 강사 서혜진(정려원 분)과 10년 만에 돌아와 그의 마음을 휘젓는 제자 이준호(위하준)의 로맨스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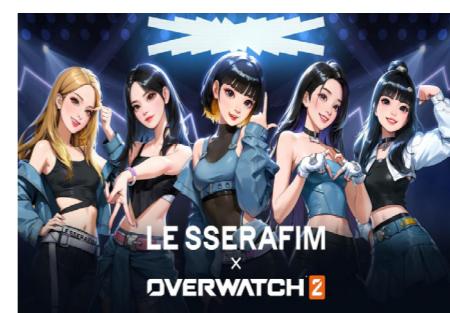
정려원은 '대치동 기적'을 이뤄낸 14년 차 베테랑 국어 강사 서혜진 역을 맡았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내공을 가진 그는 포기를 모르는 조용한 승부사다.

강단에서 내려온 이후의 삶을 고민하던 와중에 혼신의 힘을 다해 명문대에 보냈던 제자가 10년 만에 나타난다. 꽉꽉한 현실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위하준은 서혜진을 유명 강사로 만든 '대치동 기적'의 주인공 이준호를 연기한다. 탄탄대로가 보장된 대기업 사원증을 버리고 대치동 신입 강사로 들어온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밀회' 등을 만든 안판석 PD가 연출을 맡았다. / 김희정 기자

르세라핌, '오버워치 2'와 MV 협업...블리즈컨서 무대도



작했다고 소속사 쏘스뮤직이 19일 밝혔다.

'오버워치 2'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팀 기반 액션 게임으로, 오버워치가 게임 내 콘텐츠와 관련해 가수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르세라핌은 다음 달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 '블리즈컨 2023' 무대에도 오른다. / 양수민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름다운예술인상'에 이정재·이순재 조인성·김서형·임권택 선정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올해의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자로 배우 이정재, 이순재, 조인성, 김서형, 영화감독 임권택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2011년부터 해마다 영화, 연극, 선행, 독립영화, 공로 부문에서 활동이 돋보인 예술인을 선정해 아름다운예술인상을 수여해왔다. 수상자는 각각 2천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영화 부문 수상자인 이정재는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했고 영화 '헌트'로 한국 영화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극 부문의 이순재는 올해 여든이하의 나이에도 '리어왕' 공연으로 열정적인 연기를 펼친 점, 선행 부문의 조인성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환자돕기 등을 해온 점, 독립영화 부문의 김서형은 '비닐 하우스'에서 좋은 연기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임권택 감독은 100여편의 작품을 연출하고 베네치아, 모스크바,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한국 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공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단은 오는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 28에서 시상식을 열어 이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신종수 기자

전종서 '발레리나', 넷플릭스 주간 비영어권 영화 시청시간 1위



이종현 감독의 신작 '발레리나'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부문 1위에 등극했다. 18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발레리나'는 지난 9~15일 일주일간 1천470만 시청수(view)를 기록, 비영어권 영화 부문 차트 정상에 올랐다. 시청수는 작품 시청 시간을 총 러닝타임으로 나눠서 산출한 값이다.

이 영화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가해자를 추적하는 옥주(전종서 분)의 이야기를 그렸다. 화려한 액션과 뚜렷한 권선징악 스토리가 특징인 작품이다. 지난 6일 공개 후 사흘 만에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상위 10위권에 들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기준으로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89개국에서 '톱 10'을 기록 중이다. / 오현주 기자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과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

모두 이뤄지도록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뤄지다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스마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